

[경상남도 통영시]

직접 체험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전통시장’을 만든다

통영시는 「2020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선정되어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강구안 일대 및 강구안 내 전통시장 2곳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타운 챌린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

작성 : 경상남도 통영시



01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전통시장

통영시는 대상지인 강구안 일원과 이에 포함된 전통시장 2개소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함과 재미를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통시장 2개소의 시장 상인회와 대상지의 주민들 5명이 모여 지역 현황을 이야기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리빙랩 워크숍을 5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3개 솔루션 분야에서 8개 서비스를 발굴해냈다.

이 솔루션은 통영시 구시가지의 정체된 상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의 내·외부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계획하였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림 1> 시장 상인회와 대상지 주민의 리빙랩 워크숍

02 스마트 전통시장으로 만들어줄 3가지 솔루션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에서는 신선한 어류공급을 통한 전통시장의 온라인화, 투명한 가격제,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 제공을 목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주 서비스로는 ‘라이브 VOD 기반 인터넷 시장’, 부 서비스로는 ‘스마트 체험 경매’, ‘스마트 시세 알림이’가 있다.

‘라이브 VOD 기반 인터넷 시장’은 전통시장 내 입점해 있는 농수산물 소매점의 상품 정보를 CCTV 영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스마트 체험 경매’는 전통시장 소비자들에게 경매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는 소비자가 현장과 인터넷시장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보다 저렴한 특가 상품을 한정수량으로 준비했다. ‘스마트 시세 알림이’는 상품별 평균시세를 키오스크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가격 신뢰도를 높였다.



<그림 2> 라이브 VOD 기반 인터넷 시장, 스마트 체험 경매, 스마트 시세알림이(좌로부터)

둘째, ‘전통시장 방문 고객을 위한 솔루션’으로 ‘주차장 위치 정보 VMS’와 ‘스마트 이정표’, ‘스마트 물품 보관함’을 준비하였다. 해당 서비스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솔루션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물품은 보관함에 맡긴 뒤 관광을 즐길 수 있다.



<그림 3> 주차장 위치 정보 VMS, 스마트 이정표, 스마트 물품 보관함(좌로부터)

셋째, '전통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솔루션'은 전통시장 내 '스마트 미세 분무'와 '이용자 행태 분석'이다. '스마트 미세 분무'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내 대기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이용자 행태 분석'은 이용자 분석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상권 컨설팅의 기초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4> 미세 분무, 이용자 행태 분석(좌로부터)